

◀기쁜 우리 날들▶ '오늘 저녁은 혼자 드세요!'

월간 낮은 울타리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이야기'中에서

가을비가 여름 내 달궈진 대지를 적시는 날이었다. 저녁 메뉴로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가 문득 시집간 딸아이 생각이 났다. 부침개나 부쳐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걸자마자 딸아이의 목소리는 눈물로 범벅되어 알아듣기 힘들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아이는 어디가 아프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번기는 고장이 났는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더구나 남편은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비오는데 시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했다.
 "걱정마.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 가지고 가마. 아이는 기저귀 한 번 봐주고. 그만 울래두."
 "가면서 니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 가지고 갈테니 맘 편하게 기다려. 김 서방은 언제쯤 들어온다니?"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저기... 제 남편은 김 서방이 아니라... 박 서방인데요..."
 "거기가 5321번 아닌가요?" "여기는 5332번인데요..."

순간 맥이 탁 풀렸다."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줄 알고..."
 내가 사과하며 끊으려는 순간 전화기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 저기 그럼 안 오실 건가요? 죄송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린 전화라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 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 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다시 전화 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보, 나 오늘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깐 밥 먹고 들어오세요."
 "은영이네 가려고?"-- "아뇨."--- "그럼 은영이 말고 딸이 또 있나?"
 "있어요. 오늘 생긴 딸요. 그 딸한테는 내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부침개 싸들고 가 봐야 하니깐 오늘 저녁은 혼자 드세요."



◀그림 말씀▶ 외국인이 본 교회 십자가
 "와! 한국엔 왜 무덤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 십자가를 무덤의 십자가로 본 외국인, 그가 모르고 한 말이지만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말 아닐까요?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히4:12-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10권 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8년 1월 13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마음 믿기 때문이죠'

새암교회 임인수 목사

작은 산 아래
 냇물 흐르는
 길 옆 밭 속에서
 꿩이질했습니다.
 잡풀을 뽑고
 또 뽑았습니다
 큰 돌들은 골라냈고요

나같은 도둑놈도
 나같은 위선자도
 나같은 게으름보도
 나같은 죄인에게도
 먹을걸 주시려는
 하나님 마음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찰옥수수 세 알씩
 호박 모는 두 개씩 심었습니다
 녹두랑 참깨 동부랑 팔도 심었습니다.
 콩 모도 세 개씩 옮겨 심었습니다.

하늘 향해 샷대질하는
 거만한 자의 입에도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한 자 입에도
 농사와 농부를
 하찮게 여기는 이의 입에도
 먹을 걸 주시려는 게
 하나님 마음이란 걸
 믿기 때문이지요

지나는 아낙네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새들이 쪼아먹을 거라고
 익으면 남들이 따 간다고
 왜 농부가 아닌 이가
 힘들게 농사를 하냐고

따뜻한 햇살 내려 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단비를 내려 주시는
 넓고 넓은 하나님 마음
 따뜻하고도 뜨거운 하나님 가슴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말씀 따라 행하기▶
 진리를 사랑하라
 하지만
 잘못된 용서하라

◀인품 따라 행하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비참한 것은 없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11장	다 같이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360장	다 같이
기 도 Pray		이광희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4:1-4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성경! 보혈의 능력(3)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235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 5,813 총액:\$ 416,722.74

갈보리 성경 100독: 0 독

◆1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주차안내	안 내
6	유승재	서재오 최현철	현관:박정자 오지영
13	이광희		Hall 입구: 정희자 권광순
20	이규임		
27	임병숙	항존직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1월의 교회력◆

	주일 & 예배	모 임
6	신년예배	
13		
20	간중예배	
27		구역 상견례 수요예배 시작(30)

『2008 신앙생활』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 7:00 pm

- 올 해 교회표어는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입니다.
(1)올해 안에 성경 1번 완독하기 (2)성경읽으며 은혜로운 구절에 밀줄치기
(3)갈보리 성경100독 하기.
*성경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 되어 성경을 읽다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교우소식
*<등록> 최재영, 조여진 성도. 규리(조흥구, 추미선 집사 사위 가정)
☎521-3908 ☒ 28 Caulton st. St Johns
*<싱가폴로 이주> 차명은 성도. 현도. 남편의 새로운 근무지로 이주(15일)
그동안 함께 했던 기쁨과 현도의 이름, 오래기억 될 것입니다.
*<치료 후 퇴원> 정덕수 장로. 12월말 갑작스런 발병으로 입원 후 퇴원(서울)
*<개업> 김영길 집사. Charis Architectural Studio(architectural design)
- 서리집사 추가명단: 김경수(조은희 집사), 조흥구(추미선 집사)
- 성전건축을 위한 화요일기도모임 1기: <화요일 저녁 7:30분. 교회사무실>
*1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해 주신 1기 기도
회원들의 기도는 분명 성전건축의 거룩한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1기: 김교섭, 김선화, 박은경, 안은주, 임병숙, 장유진, 정혜숙, 정희자, 현석호
- 성전건축을 위한 토요일기도모임 2기(남성으로만 구성) 모임
<모임일시> 26일(토) 저녁 7:30분-2월 23일(토) 5회모임
<담당 & 참가신청> 현석호 집사
- 수요예배가 방학중입니다.
- 금요새벽기도회 <금요일 새벽 5:50분>
*새벽여명이 일찍 오는 여름! 여명 해치고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가 그 새벽에
있습니다.

◀짧은 생각▶

눈

김성국

내 살던 서울 동네에
큰 눈 내려 혼잡스럽다는 뉴스

그 흰 눈 덮고 누우면
참 따스할 것 같은 내 마음

